

「중국도시정보 27」*

산시성 경제발전 및 한국과의 교류 현황

작 성 | KOTRA 시안무역관
김태민 (ktm@kotra.or.kr)

목 차

1. 산시성 개요
2. 산시성의 경제 발전 현황 및 전망
3. 한-산시성 교류 동향

* 인차이나브리프에서는 중국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전략에 주목, 각 지역의 주요 거점도시 및 도시권의 발전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중국도시정보> 시리즈를 기획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중국 발전사에 존재했던 몇 차례의 발전 기회를 놓치며 다소 늦은 발전상을 보여온 산시성은 최근 중앙·지방 정부의 지원과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해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
-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제조업 유치 및 대외무역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경제발전 모델을 채택하였으며, 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안의 경제발전 성과를 인근 도시로 확대하여 서부삼각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국은 산시성의 2대 교역국으로,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높은(39.57%) 산시성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이며, 삼성의 진출로 한국과의 협력 접점이 한층 더 강화됨. 한편, 일대일로의 물류 허브로서 동아시아 물류 허브인 인천과의 협력 기회 또한 존재할 것으로 전망됨

1. 산시성 개요

■ 산시성(陝西省) 개황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본적으로도 유명한 산시성은 중국 대륙의 최종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도인 시안이 13개 왕조의 도읍으로서 1,100여 년 동안 수도의 역할을 해왔을 만큼 중국 문명의 발상지로 여겨지고 있음
- 산베이(陝北, 북부), 관중(關中, 중부), 산난(陝南, 남부) 3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베이는 풍부한 석탄(1,400억 톤)·석유(11억 톤), 천연가스(5,800억 m³) 매장량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산업을, 관중은 서부대개발 당시 집중된 항공우주, 장비제조, 첨단기술을 비롯한 문화여행 등 서비스업 산업을, 산난 지역은 생물제약, 생태농업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삼고 있음

표 1 | 산시성 개황

구분	내용
공식명칭	- 산시성(陝西省), 약칭 산(陝) - 영문표기시 산시(山西)와의 구별을 위해 Shaanxi로 표기
주요 지도자	- 당서기: 후허핑(胡和平) - 성장: 류귀중(劉國中)
면적 및 구성	- 20,58만km(중국 전체의 2.1%, 한반도의93%) - 성도 : 시안(西安) - 시안(西安), 바오지(寶雞), 셴양(咸陽), 퉁촨(銅川), 웨이난(渭南), 옌안(延安), 위린(榆林), 한중(漢中), 안강(安康), 상뤄(商洛) 10개 직할시 / 양링(楊凌) 농업 하이테크산업 시범구
지리	- 지리적으로 중국대륙의 정 중심, 황하중류에 위치 - 남북(약880km)이 길고, 동서(약160~490km)가 좁음 - 산베이, 관중, 산난 세 지역으로 나뉘며 친링(秦嶺)산맥 남쪽은 長江水系에, 북쪽은 黃河水系에 속함
기온	- 대륙성 계절풍 - 연평균 기온 7-16℃ / 연강수량 396-802mm
인구	- 3,835.44만 명(2017) - 남성(1,979.88만 명): 51.62%, 여성(1,855.56만 명): 48.38%
민족 및 종교	- 대부분 한족(99.5%)으로 구성 - 회족(78.9), 만주족(8.95), 몽골족(3.44), 장족(1.73) * 괄호는 소수 민족 중 비중(%) - 불교, 이슬람교, 유교, 기독교, 도교
언어	- 보통화(普通話), 산베이화(陝北話), 산난화(陝南話), 관중화(關中話)
산업구조	- 1, 2, 3차 산업 비중 7.5 : 49.7 : 42.8 (2018년 기준)

출처: KOTRA 시안무역관 자체 정리

■ 주요 지표(2017년 기준)

- 최근 중국의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8%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등교육시설 확충, 후커우(戶口) 발급 완화 등 다양한 인재 유입 정책을 기반으로 빠른 인구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음
- 내륙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연해지역에 비해 현재까지는 수출입 규모가 크지 않지만 장안호(長安湖, 중국-유럽 화물열차) 활성화 및 보세구 설립을 비롯해 수입증치세수 인하 등 다양한 정부 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 중

표 2 | 산시성 주요 지표

구 분	중국 전체		산시성		
	실적	증가율(%)	실적	증가율(%)	비중(%)
인구(만 명)	139,008		3,835		2.7
면적(만 km ²)	963.4		20.58		2.1
GDP(억 위안)	827,122	6.9	21,899	8.0	2.6
1인당 GDP(달러)	8,571		8,296		-
고정자산투자 (억 위안)	631,684	7.2	23,819	14.4	3.78
소비재판매 (억 위안)	366,262	10.2	8,113	10.1	2.21
수출(억 달러)	22,113	10.8	240.30	58.8	2.44
수입(억 달러)	17,972	18.7	105.46	13.8	0.85

출처: 중국국가통계국(2018년), 산시성통계국(2018년) 저자 재정리

2. 산시성의 경제 발전 현황 및 전망

1) 산시성 발전 현황

■ 산시성 발전 과정 및 현황

- 중국 발전사에 존재했던 몇 차례의 발전 기회들을 놓치며 인근 성시들에 비해 다소 늦은 발전상을 보임
 - 삼선건설(三線建設, 1964~1980) 및 대외개방 과정에서 3선 도시로 분류되면서 연해-내륙 간 불균형 발전 속에서 도태
 - 이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서부대개발(1999~) 정책의 중점 도시로 분류되었으나 쓰촨(四川), 충칭(重慶) 등 주변 성시들에 발전이 집중되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모습을 보임
 - 2003년 산시성 정책결정자문위원인 양용산(楊永善) 등은 자연자원과 과학 기술/산업 기반이 풍부함에도 지역경제는 낙후한 산시성의 모순된 상황을 ‘산시현상(陝西現象)’이라고 지칭하며, 경제개발의 중요성을 피력
- 이후, 12·5 계획 속에서 아래 몇 가지 우위에 따라 일대일로의 중심 도시로 설정되면서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이기 시작
 - (역사적 우위) 일대일로의 기원인 실크로드의 기점이 시안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 및 홍보 효과 존재
 - (지리적 우위) 중국의 정중앙에 위치한 산시의 특성상 중국 연해 지역과 CIS, 유럽을 잇는 게이트웨이 역할 수행 가능
 - (정치적 우위) 시진핑 국가주석의 고향으로 중국 내외부로부터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받기 용이한 전략적 지역
- 시안시 정부 차원의 다양한 경제 부양책이 실시되면서 동급 성시들과의 경제 규모 격차를 점차 줄여가고 있으며, 일부 지표의 경우 동등한 위치로 올라서고 있음

- 2018년 기준 시안시 수출입 총액 동기 대비 29.58% 성장한 3,303억 위안 기록, 무역의존도 또한 '16년 이래 연 평균 3%포인트씩 증가하여 2018년에는 중국 전체 무역의존도(33.88%)에 비해 5.69% 높은 39.57%를 기록
- 2012년 삼성 반도체의 성공적인 유치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동기 대비 17.8% 증가한 53.07억 달러를 기록. 청두, 우한, 항저우 등에 비하면 저조한 실적이나 빠른 속도로 추격 중
- 특히 2018년도 수치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첫째, 대외무역 중 가공무역의 66.6%에 달한다는 점이며, 둘째 시안시 전체 수출입 가운데 외자기업의 수출입 비중이 71.7%에 달한다는 점으로 이는 시안이 외자의 유치와 이용을 통해 글로벌 밸류체인에 안정적으로 진입했음을 의미
- 석탄 1,600억 톤, 석유 3.8억 톤, 천연가스 7,587억^m 등 총 46조 위안에 달하는 전국 1위(전국 1/3) 규모의 광산자원 잠재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에너지자원의 고부가가치화와 친환경 에너지의 개발에 힘쓰고 있음
- 산시성은 총 96개 대학교 내 재학생 108.3만 명, 대학원생 9.7만 명 등 서북지역 최대 규모의 인적 자원을 자랑하며, 1,061개의 연구소와 108만 명의 전문기술인력을 유치
- 2018년 산시성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통계공보(陕西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에 따르면 2018년 산시성의 경제는 GDP 8.3% 상승(전국 5위), 고정자산투자 10.2% 증가, 1인당 가처분소득 9.2% 증가 등 긍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 산업구조가 국유기업 위주이며, 도시-농촌 간의 불균형으로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지 않다는 등의 문제점도 상존

2) 산시성 발전 방향

■ 관중 평원도시군 발전계획

- 2018년 2월 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国家发展改革委)와 주택 및 도시 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에서 관중평원도시군발전계획(关中平原城市群发展规划)을 공동 발의
 - 국가 균등발전의 일환으로 진행된 본 계획은 관중평원도시군의 발전을 통해 동부 연해지역의 발전된 경제와 시장을 서부로 확장하고, 일련의 연관사업(서부대개발, 일대일로 건설 추진)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특히 시안이 중국 내 9번째 ‘국가중심도시’¹⁾로 지정되면서 시안과 관중 도시 간의 연대 발전을 도모코자 도시구조배치와 기능 정립과 최적화, 유망 산업육성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본 계획에서 다루고 있음
- 산시성(陕西省)의 시안·바오지·셴양·통촨·웨이난 5개 도시와 양링 농업고신기술산업시범구 및 상뤄 일부와 산시성(山西省)의 윈청(运城) 일부, 린펀(临汾) 일부, 간쑤성(甘肃省)의 텐수이(天水), 평량(平凉) 일부 등 총 10만 7,100km에 달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2035년까지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1) 국가 발전을 위해 특정 분야에서의 중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중국 주택 및 도시건설부에서 지정하며, 현재 베이징, 텐진, 상하이, 광저우, 충칭, 청두, 우한, 정저우, 시안 등 9개 도시가 국가중심도시로 지정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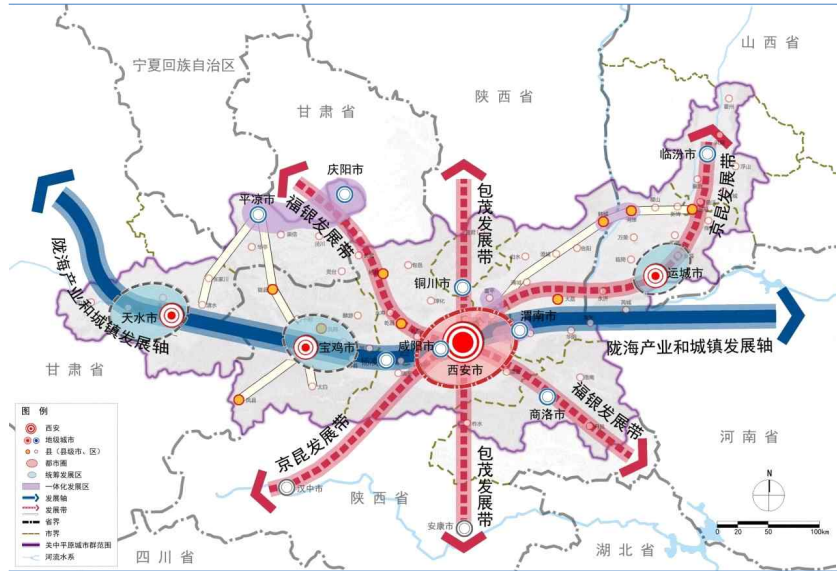
그림 11 관중평원성시군 계획범위도



출처: 国家发展改革委(2017)

- 특히 시안을 중심으로 주변 도시의 발전을 이뤄내는 1권역 모델과 주변 선진도시와의 연결을 추진하는 ‘1축 3개 발전 벨트’의 미(米)자형 발전 모델을 구축

그림 2 | 관중평원성시군 공간배치도



출처: 国家发展改革委(2017)

표 3 | 관중평원성시군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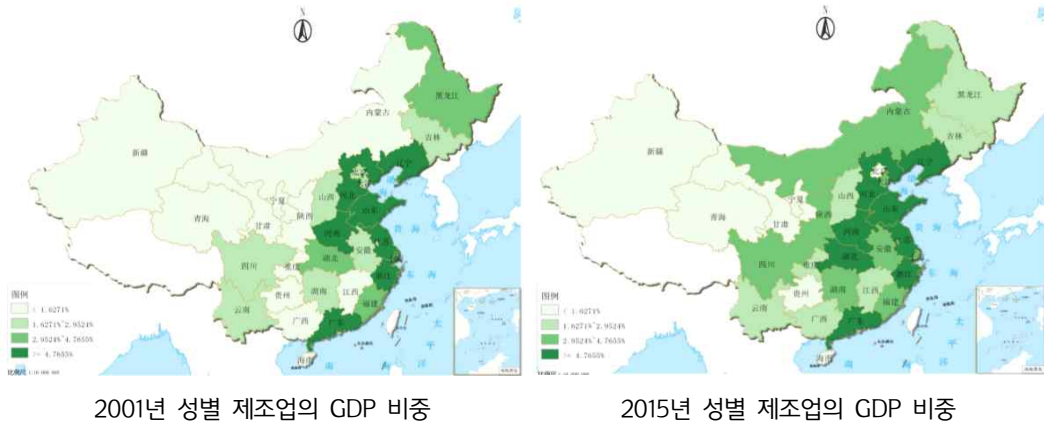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1권역	시안, 셴양 도심구역 및 시셴신구(西咸) 위주로 구성된 대시안도시권(大西安都市圈)
1개 축	간쑤·렌원강 철로와 렌원강·신장웨이우얼 고속도로로 이어진 횡단선(가로축). 서쪽으로는 간쑤, 칭하이, 신장웨이우얼 등을 비롯 일대일로 연선국가(지역)을, 동쪽으로는 중원지역과 연해지역으로의 연계를 강화함
3개 벨트	<p>바오마오, 징쿤, 푸인 개발구의 형성을 통해 대시안도시권, 징진지, 그리고 장강경제벨트 간의 도킹을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오마오 개발구: 바오마오 (네이멍구·광둥성) 고속도로 및 고속철 등 노선 통천(铜川)을 거쳐가는 노선을 통해 통천을 대시안도시권에 편입시킴과 동시에 주변 지역 (옌안, 위린, 한중, 안강) 등의 동반발전을 도모하는 도시 발전벨트를 형성 - 징쿤 개발구: 징쿤(베이징-쿤밍) 고속도로, 다시(다둥-시안), 시칭(시안-청두) 고속철도 등의 노선을 통해 윈칭, 린펀, 허우마 등 허브 도시와 연선 중소 도시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징진지 지역과의 도킹을 이뤄낼 수 있는 새로운 경제지역을 형성 - 푸인 개발구: 푸인(푸저우-인촨), 인시(인촨-시안) 그리고 시우(시안-우한) 고속철을 통해 '핑량-칭양', '린셴-창우-순이' 간의 일체화 발전을 추진하고 상뤄 등 허브도시의 녹색 발전을 이끌어 내 장강경제벨트에 도킹시키고 닝샤 자치구로 확대되는 경제벨트를 형성

출처: 国家发展改革委(2017), KOTRA 자체 정리

■ 제조업 기반 강화

- 개혁개방 이래 중국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제조업 클러스터가 서부로 이동되는 현상 나타나고 있음
 - 연해지역의 환경규제 강화, 서부지역 경제 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지방정부 투자 우대 혜택 향유를 위한 외자 제조업 기업들의 서부 이동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힘
- 표 1(2001년 성별 제조업의 GDP 비중)과 표 2(2015년 성별 제조업의 GDP 비중)를 비교해보면 제조업 기반이 중서부 지역으로 이동 중임을 확인 가능
 - 색이 짙을수록 비중이 높음을 의미

그림 3 | 성별 제조업 GDP 비중 비교(2001년, 2015년)



출처: 陈国生, 张亨溢, 赵立平, 魏晓博, 罗娇霞(2018)

표 4 | 2019년 산시성 제조업 분야 발전 방향

구분	주요 내용
전통제조업 품질과 효율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투자 500억 위안 상당의 100개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건설 추진 - 전통산업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지능화 촉진 - 기계, 야금, 건자재, 방직, 식품 등 산업의 업그레이드 - 건축업 최적화, 에너지 화학산업의 전환적 발전 - 78개 중비기업 퇴출, 석탄 생산 210만 톤 감소 추진
신흥 전략산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장비제조, 집적회로, 신에너지 자동차, 신소재 등 산업체인망 업그레이드 추진 - 궤도교통, 산업용 로봇산업 강화 확대 - 선저우 700 비행기 연구제작생산, C919 비행기 부품, 통용항공기, 무인기 등 항공산업 발전 가속화 - 위성이동통신, 항법위치시스템, 원격탐지 등 우주산업 발전 촉진 - 차세대 정보기술산업클러스터 조성 발전 - 시안 BYD 2기, 시안 Geely 자동차 산업단지 등 완성차 프로젝트 중점 추진 - 자동차 및 부품 산업체인망 완비 - 고급 금속소재 등 신소재 산업 강화 - 혁신의약품, 현대적 중의약 등 바이오 의약분야의 산업체인망 구축
선진제조업 과 생산성 서비스업의 융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과 생산성 서비스의 융합 발전 추진 - 대형중형기업, 특화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설계 추진 - 장려, 공업설계서비스, 과학기술관리컨설팅 등 업무를 적극 추진 - 제조업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검험검측, 법률컨설팅, 정보기술, 인력자원서비스 등 생산성 서비스업 발전 확대 촉진
제조업 기술혁신능 력 증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민, 중앙지방 간 융합을 심도있게 추진 - 선진제조업 수요에 따라 필요한 핵심기술을 증강 - 산학연용 융합혁신기제 구축 가속화 - 국가급 혁신 플랫폼과 자원의 집중배치 - 혁신 창업지원 정책 완비, 국가 창업·혁신(双创) 시범기지 건설 강화, 지적권보호 강화

출처: 陕西省人民政府(2019), KOTRA 자체정리

■ 스마트시티 구축

- 일대일로 전략 시행의 전제 조건으로서 물류 자동화 등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한 요구 확대
 - 알리바바, ZTE, 등이 진출해 있으며, 2019년 5월 12일 바이두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와 넷이즈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서부 운영 센터의 투자 또한 확정되는 등 IT 업체 유치에 주력

표 5 | 관중평원성시군 계획

구분	주요 내용
'광대역차이나'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까지 농촌지구에 100M(초당) 이상 도심 지역에 1,000M 이상 접속 가능토록 서비스 제공 - 인터넷 IPv6 업그레이드 개조 전면 실시 -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 완비 - 4G 네트워크의 도시-농촌 보급과, 5G상용화 전개 -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독려 및 지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혁신시범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센터, 및 시센신구 빅데이터 산업단지의 중점 건설. - 평시(津西) 빅데이터 산업단지를 중심 으로 시안-시센신구에 걸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혁신을 적극 전개 - 대용량 데이터의 수집축적, 선별분석, 발굴, 가시화 등 기술 강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안西安, 바오지宝鸡, 웨이난渭南, 통촨铜川, 셴양咸阳, 텐수이天水 등에 스마트도시 건설을 추진. - 통합 데이터 공유·교환 플랫폼과 기존 시설자원을 활용하여, 관중평원도시군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고, 전자정부 정보자원의 공유를 추진함 - 인구, 공간지리 정보자원 DB와 도시공공기초DB를 완비 - 중심도시 광대역 무선네트워크의 전 범위 커버
인터넷플러스 중점 프로젝트	<p>전자상거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안, 바오지, 웨이난, 통촨, 셴양, 텐수이 등에 국가전자상거래 시범도시 건설 가속화 및 지원 - 대형 비즈니스, 정보서비스기업의 특색있는 전자상거래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건설 장려
	<p>온라인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캠퍼스 건설을 적극 추진, 교육서비스플랫폼 운용 장려 - 온라인교육의 신모델을 발굴, 양질의 교육자원 제공범위 확대 - 인터넷기업과 합작 등 방식을 통해 온오프라인 교육자원 활용 - 기초교육, 직업교육 등 온라인교육서비스 제공
	<p>온라인 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정보 공유서비스 플랫폼 건설 - 병원 간 의료수치 공유교환 표준체계의 점진적 건립 - 모바일인터넷을 적극 활용 온라인 진료 예약, 환자비용 납부, 진료 리포트컨설팅 등 간편 서비스를 제공
사물인터넷 응용시범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도시 건설에 동반하여 센서 등 사물인터넷 기술 발전시킴 - 통신망 센서망과 사물인터넷망의 기술융합혁신을 가속화 - 생산과정에 적극적으로 사물인터넷의 응용 추진 - 생산장비의 스마트화 업그레이드, 프로세스개조와 기초수치 공유 - 지능형 교통관리, 지능형 이동 정보 서비스와 차량 지능화 제어를 통해 차량 네트워크망 발전을 추진 - 엔진 장비 스마트서비스 클라우드 플랫폼 시범프로젝트와 클라우드 제조테스트시범 등의 프로젝트 지원

출처: 国家发展改革委(2017), KOTRA 자체정리

■ 대외무역 강화

- 산시성의 대외무역 및 투자유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절대적 측면에서는 중국 평균 또는 주변 성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로, 이는 여전히 높은 발전 여지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음
- 2013년 11월 28일 국제 화물열차 ‘장안호(長安號)’ 개통
 - 2014년 6월까지 매월 2차례, 2014년 하반기부터 매주 한 차례씩 운행하는 국제 화물열차로 일간양지(一干兩支, 하나의 간선과 두 개의 지선)로 이루어짐
- 시진핑 국가 주석이 언급한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토대로 대외개방형 경제 및 경제 활성화 추진. 세관 신고 면제와 중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 보장. 시안 제조 상품이 6일 만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도착하는 등 운송 시간 단축
 - 현재, 유럽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부품, 항공 부품, 건축자재, 공산품 등이 장안호를 이용하고 있으며, 추가 노선 개발 중

표 6 | 장안호 노선

연번	구간	소요기간	
1	시안-로테르담(9,850km) 시안-신장-카자흐스탄-러시아-벨로루시-폴란드-독일-네덜란드	18일	간선
2	시안-모스크바(7,251km) 시안-신장-카자흐스탄-러시아	14일	지선
3	시안-카자흐스탄 (알마티 3,866km/Remu 5,027km) 시안-신장-카자흐스탄	알마티 6일, Remu 10일	

출처: KOTRA 시안무역관 자체 정리

- 산시성 정부는 일대일로의 활성화를 위해 아래 3개 지역에 서북지역 유일의 자유무역시범구(FTZ)를 설치, 무역 투자 편리화 추진,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중 사후 관리 감독체제, 행정 간소화, 법치 환경조성, 물류 플랫폼 구축 등의 분야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음

표 71 산시성 FTZ 소재지 환경

지역	내용
가오신구(高新区) (86.76km ²)	높은 대외개방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다양한 외자기업과 하이테크 기업들이 포진(삼성, 인텔, 구글, 시멘스, 화웨이, ZTE 등) 금융자원 집중 (약 1,400여개의 금융 서비스 기구와 60여개 금융기구 본부가 위치)
강우구(港务区) (26.43km ²)	중국 내 유일하게 국제·국내항구 코드를 부여받은 항구지역 '시안 종합물류기지'와 '철도 컨테이너 기지', '종합 보세구' 등 주변 인프라가 이미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해관, 검역기구 등 기관 및 물류기업 또한 다수 진출해있어 FTZ로서의 기능을 빠르게 강화 중
양링시범구(杨凌示范区) (5.76km ²)	중국 최초의 농업 하이테크 산업시범구로 글로벌 농업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해 다양한 글로벌 R&D 사업 전개

출처: KOTRA 시안무역관 자체 정리

■ 소결론

- 과거 산시성은 자원, 과학, 산업 기반이 풍부함에도 낙후된 경제를 보이는 모순된 발전상을 보여 줌
- 중국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 하 연해 지역의 제조업 이전을 적극 수용함과 동시에 환경 보호 산업과 IT 융합을 통한 스마트시티 구축에도 집중. 아울러, 국제 화물열차 증편 및 자유무역시험구 활성화 등 대외무역 강화와 호구 개방을 통한 인재와 인구의 시안 유입 증가를 기반으로 고속 경제 성장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
- 관중 평원 성시군 계획 下 시첸신구(2011-2020) → 시첸일체화 → 시안 국제화대도시 건설 → 관중-텐수이 경제구 건설 및 서부삼각경제권이 가시화 될 경우 주장, 창장 경제구 및 환발해만 경제권에 이은 중국 제4대 경제성장축으로 부상 전망

- 그러나 경제 산업구조가 아직까지 국유기업 위주이며, 도시-농촌 간의 불균형으로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지 않다는 등의 거시적 문제점을 비롯,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른 부동산 가격 및 교육비 폭등 등의 미시적 문제점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잔존 문제

3. 한-산시성 교류 동향

1) 한-산시성 교류 동향

■ 고대~근대 교류

- 당나라 시기를 중심으로 불교 문화의 전파와 계승 과정에서 신라와의 교류가 잦았으며, 소릉 주변에서 출토된 진덕여왕 석상, 건릉의 신라인 석상, 장회 태자 묘에서 발굴된 사신도의 신라(또는 고구려) 사신 등을 통해서도 당나라(수도 장안)와 신라 간의 활발한 교류 상을 확인 가능
-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광복군 총사령부가 시안 시내에 주둔하였으며, 1942년 4월 광복군 제2지대가 시안시 얼푸가(二府街) 4호에 설치되는 등 항일운동의 근거지로 활용

■ 현대 교류 동향

- 2007년 주 시안 총영사관이 설치된 이후 4개 도/시와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시)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했으며, 12개 시/군이 산시성 각 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음
- 2018년 산시성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 수는 작년 대비 80.12% 증가한 55.97만 명을 기록, 외래 관광객 중 최대 규모(18.21%)를 차지

표 8 | 한-산시성 우호교류협약 체결 현황

교류도시		종류	체결일자
성급	산시성-경상북도	자매결연	2013.04.05
	산시성-경상남도	우호교류의향서 체결	2008.10.16
	산시성-충청북도	우호교류도시	2015.05.19
	산시성-세종특별자치시	우호교류도시	2015.05.22
시/군급	시안시-경주시	자매결연	1994.11.18
	시안시-진주시	자매결연	2016.05.15
	셴양시-의성군	자매결연	2003.10.17
	셴양시-함양군	우호협력교류	2015.05.26
	통촨시-봉화군	자매도시	1997.06.20
	웨이안시-구미시	우호결연협정서 체결	2014.11.17
	웨이난시-창원시	국제우호도시	2015.10.08
	상뤄시-진안군	우호교류도시	2015.05.25
	바오지시-예천군	자매결연	2016.05.26
	한청시-여주시	우호교류협약 체결	2016.02.06
	한청시-광명시	문화·예술·관광 교류협력의향서 체결	2016.02.06
	한중시-청령군	우호교류협정 체결	2019.02.20

출처: 주 시안 대한민국 총영사관

2) 한-산시성 교역동향

■ 한-산시성 무역·투자 동향

● 한-산시성 무역 동향

- 빠른 교역액 증가세를 보이며, 2018년 최초로 교역액 100억 달러를 달성

- 2019년 1~2월 한-산시성 전체 교역액은 94억 9,300만 위안으로 산시성 전체 교역액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1위 타이완(28.6%), 2위 한국(16.5%)
- 한국의 대 산시성 주요 수출품은 메모리반도체, 전자 집적회로 제조용 기기, 인쇄회로, 폴리실리콘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컴퓨터 기억장치, 전자 부품, 리튬이온 배터리 등

표 9 | 한-산시성 무역동향 (단위: 백만 달러)

년도	수출 (산시성 → 한국)		수입 (한국 → 산시성)		교역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12	409	-14.9%	224	4.3%	633	-9.1%
2013	434	6.3%	1,398	523.6%	1,832	189.45%
2014	1,353	221.3%	1,508	7.8%	2,861	72.49%
2015	1,942	43.6%	1,929	27.9%	3,871	35.34%
2016	3,011	55.0%	2,069	7.3%	5,080	31.23%
2017	4,411	46.5%	2,806	35.6%	7,217	42.07%
2018	4,871	10.4%	5,142	83.2%	10,013	38.74%

출처: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對 산시성 투자 동향
- 2018년 기준 산시성에 진출한 한국법인은 총 310여개이며, 거주 교민은 약 3~4,000명 수준으로, 2012년 삼성 진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옴

표 10 | 한국의 대 산시성 투자동향 (단위: 천 달러, 건)

년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2012년	9	8	369,478
2013년	41	34	2,027,551
2014년	35	19	171,542
2015년	33	16	11,760
2016년	19	8	6,171
2017년	16	4	329,252
2018년	29	8	341,953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 인천-산시성 협력

- 공항신도시 구축 관련 경험 공유
 - 산시성 공항신도시(空港新城)는 시첸신구 서북부에 위치한 항공도시 실험구로 '14.5월 비준 이래 공항 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물류, 무역, MRO, 제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노력
- 2017년 기준 셴양공항의 여객 규모는 4,186만 명, 물동량은 40.7만 톤으로 규모가 적지 않은 편이며, 연중 3기 확장공사 또한 예정되어 있어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시안시 중심까지 비즈니스, 주거 및 관광 서비스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공항 경제권의 메리트를 살리고 있지 못함
 - 여객·화물 운송 등 제한적 역할에서 벗어나 물류 및 서비스 산업으로의 발전에 있어 송도, 청라 및 영종도의 경험을 공유함과 동시에 인천공항 경제권 내 항공 정비, 물류, 도시개발, MICE, 서비스 기업의 시안 진출을 도모하는 등 협력 방안 검토 필요
- 국제 물류 협력
 - 시안 셴양공항, 국무원 2018년 제38호 통지 38조에 의거 2018년 11월 23일 '제5 자유운수권' 확보. 이를 통해 국적기가 중간경유지

인 시안에서 화물을 탑재·적하한 후 제3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짐

- 대한항공, 센양공항 ‘제5 자유운수권’ 활용의 첫 번째 사례로 인천-시안-하노이를 운항하는 B777F 정기 화물노선 공식 개설(한국 시각 2019년 5월 12일 첫 취항)

- 센양공항의 제5 자유운수권 및 창안호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시안을 기점으로 하는 중앙아시아 및 유럽과의 철도 물류와 동남아로의 항공 화물 운송을 활성화하여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중심도시 및 동아시아 물류 허브로서의 인천의 역할 강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참고자료

陈国生, 张亨溢, 赵立平, 魏晓博, 罗娇霞(2018), “比较优势和竞争优势对地区制造业转移的影响[J]”, 『经济地理』

陕西省人民政府(2019), 「2019年陕西省政府工作报告」

国家发展改革委(2017), 「关中平原城市群发展规划」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검색일: 2019-06-05).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stats.koreawexim.go.kr>(검색일: 2019-06-05).

주 시안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overseas.mofa.go.kr/cn-xian-ko/index.do>

중국국가통계국. <http://data.stats.gov.cn> (검색일: 2019-06-01).

시안시 통계국, <http://tjj.shaanxi.gov.cn/> (검색일: 2019-06-01).